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김병주
제 목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p>경북 성주 산골 마을에서 4남 3여 중 3남으로 태어나서 호롱불 밑에서 대가족이 생활하면서, 달밤에는 늑대가 주택가까지 내려오던 동네에서 농사일을 돕고 자연을 벗 삼아 어린시절을 보냈다.</p> <p>초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부모님은 농사일 때문에 들판에 나가 안 계시고 배가 고파 장독 위 대나무 소쿠리에 삶아 놓은 보리밥을 물에 말아먹고, 소를 몰아 앞산 위에 방목을 시키고, 소 먹이 거리로 풀을 베서 망태기에 담아 해가 질 무렵이면 소를 몰고 집에 오는 전형적인 농부의 아들이었다.</p> <p>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이 있는 날, 아버지께서 모를 심기 전 모판을 옮기려 논에 가자고 하시는 데 부모님이 못 찾으시게, 유달리 나를 귀여워해 주신 돌아가신 할머니 빈소에 숨어서 공부해서 그날 좋은 성적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p> <p>어렵사리 중학교는 입학했지만 매일 10리 길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통학하였고, 선배 운동선수들의 운동복을 물려받고 싶어서 배구선수로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등 운동을 좋아했고 상대적으로 공부는 소홀히 했다.</p> <p>아버지는 많은 형제를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기보다는 시골에 남아서 많지도 않은 논농사와 참외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p> <p>어느 날 형님이 산에 나무 베는 일을 하러 갔다가 잠시 쉬는 중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지만 나는 막연하게 시골을 떠나 도시에 가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p>			

결국, 중학교 졸업 후 부모님 반대에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여 혼자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공고나 상고 개념도 없이 '수송 공고' 전기과 야간에 입학하였으나 전기전공이 적성에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울로 떠나는 날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서 낮에는 사환으로 돈을 벌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동생 공부하는 데 도움도 주고 부모님께도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혼자 미아리 단칸방에서 자취하면서 연탄불에 중독되는 등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먼 훗날 성공을 꿈꾸며 힘들고 어려운 줄 모르고 열심히 생활했다.

고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모처럼 시골에 갔는데 마침 선배가 상고를 졸업해야 은행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공고가 적성에 맞지 않고 졸업 후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2학기 마칠 무렵 두꺼운 전화번호 책을 뒤지며 서울 시내 모든 상고에 직접 전화를 해서 편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결국 '보인 상업고등학교' 야간부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2학년으로 편입해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비록 명문 상고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고 목표가 있었으므로 일을 하면서 저축도 하고, 막냇동생도 서울 학교로 전학시켜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동생 뒷바라지와 심지어 도시락 까지 직접 챙겨주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형이 싸준 도시락 반찬이 가장 맛있었다고 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다.

동생과 같이 생활하면서 '보인 상고'에서 늦게 출발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최초로 부기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자부심도 많이 느꼈고 취업도 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대학에 꼭 가고 싶은데 군 복 무가 눈앞에 닥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결국, 군 복무와 대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군부사관에 자원 입대하여 훈련소를 1등으로 수료하고 고향인 대구 비행장으로 발령받았다. 야간대학에 다니려고 공부하였지만, 상사의 반대로 학교가 없는 예천 비행장으로 전근을 하러 가게 되어 한 동안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방송통신대 초급과정' 이 있다는 것을 상사에게 소개받고 입학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겼고, 군 복무 중 다른 동료들은 휴가를 즐기면서 군 생활을 했지만 나는 휴가를 이용해서 비용도 절약할 겸 독서실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직업의 학우들과 계절 수업에 참여하며 공부했던 시절이 너무나 보람 있고 뿌듯했다.

어느덧 방송통신대 초급과정 졸업과 5년 8개월이라는 장기 복무를 마치고 공군 중사로 전역을 하게 되었다.

전역과 동시에 방통대에서 공부한 덕분에 82년 9월 '삼성그룹 고졸자 공채' 합격하여 인사부에서 근무하면서 '방송통신대 학사과정'으로 편입하였고 졸업 후, 그 당시에는 통신대 석사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공부를 더 할 수 없어서 대학원 공부를 할 계획으로 상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서울 본사로 근무지도 옮기고, '송실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명문대 출신 동료들 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상사에게 꼭 필요한 직원으로 인정도 받았고 학위도 무사히 취득할 수가 있었다.

물론 박사과정도 합격은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중도에 포기하고 오직 회사 일에만 몰두하여 30년 이상 꾸준히 우수한 인사고과를 받아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승진 때 체류 연한보다 1년씩 빨리 발탁승진을 하는 행운이 따르기도 했고 해외 교육기회와 사장상, 이견희 회장상, 국방부 장관상, 대통령상 등 많은 표창도 받았다.

직장 퇴근 후 항상 방통대 공부하는 모습을 어릴 적 자녀들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 두 명 다 훌륭하게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면 더욱 보람을 느낀다.

특히 막내는 중학생 때 국가대표로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최연소 금메달 수상과 세계 수재들이 모인다는 MIT에서도 학사와 석사 모두 만점으로 조기 졸업 후 현재 대기업에서 AI 담당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삼성 입사 25년 만에 고졸 입사 자 최초로 꿈에 그리던 "삼성 인사담당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방통대와 석사과정 졸업도 했고 영어와 일어를 꾸준히 한 덕분에 상사와 동료들에게 자기 계발을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았다.

삼성 입사 후 삼성의 신 인사제도 도입과 당사가 삼성 계열사 중 직원만족도 1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회공헌위원장도 맡아 부모님께 못다 한 효도를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매년 효도 행사를 할 때 어떤 할머니께서 "자식보다 좋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다.

그리고 직원 자녀 공부방 운영, 그리고 교육청 및 고등학교 후원과 강의를 통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고 젊은 시절 군 생활을 오랜 기간 한 인연으로 군 장병 후원과 강의도 많이 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산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과 충남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6년 이상 활동하였다.

고졸 입사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에 뽑혀 교육도 받는 영광도 얻었고 비록 CEO는 되지 못했지만, 전무로 발탁승진 후 오직 직원과 회사 발전만 생각하는 인사담당 임원으로 33년 근무 후 15년 말 전무로 퇴임하게 되었다.

(주 근무지는: 제일합섬,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퇴임 후 인사경험 노하우로 회사와 사회적으로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겠다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취준 생들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주대 경영대학에서 무보수로 시작해서 현재 교수가 되어 5년째 '취업·진로 상담 센터장'을 맡아 학생들 진로 및 취업 지도와 강의를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을 내 아들, 딸처럼 지도하다 보니 학교에서 우수교원으로 선발되어 총장상도 받게 되었고 학생들에게도 존경받는 교수로 평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과 '제네시스 랩'에서 AI 면접위원과 감사 등 현재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 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하면서 배움의 갈증 해소와 지식을 함양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방송통신대학교' 와 '사이버 대학교'가 아닌가 생각하기에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기 공모에 신청하게 되었다.